

어린이 책꽂이

▲문화를 알면 사회가 보인다(우리 문화 편)=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를 다뤘다. 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서부터 조상들의 삶과 지혜, 여가문화 등이 소개돼 있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최근 40여년간 몸담아온 교단을 떠난 심전갑 김용택 시인의 동시집, 꽃, 풀, 새,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시인이 고향마을과 산골학교에서 보고, 느낀 것을 동시로 담았다.

▲아옹 아옹 클린과 쿨쿨상자=떠돌이 고양이 클린의 포근한 잠자리 찾기 소동을 그린 그림책, 낯잡을 자고 싶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클린은 과연 언제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중국 똥따먹기=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통해 자칫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중국의 문화, 역사, 인물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베이징, 홍콩, 소림사 등의 명소를 별도의 학습페이지로 구성해 중국의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양반은 못말려=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시문집 '연암집'에 수록된 양반전, 호질, 광문자전 등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무능한 양반과 기회주의적 부자, 무능한 관리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일본은 왜 무책임한 나라가 됐을까

일본의 재구성 패트릭 스미스 지음

잇을 만하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 온 국민을 공분케 하는 나라. 총리까지 나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외면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왜 일본은 이처럼 무책임한 것일까. 일본의 국민성은 원래 그런 것일까?

독도 도발과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에서 어느 때보다 역사의식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담은 일본 해설서가 나왔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의 특과원으로 20여 년간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패트릭 스미스는 '일본의 재구성'(원제 Japan: A Reinterpretation)을 통해 "국민성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일본이 왜 '국가적 정체성이나 역사의 기억과 망

각이라는 문제에 관한 한 아직도 현재진행형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 일본이 처한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를 지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은 일본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일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터무니없이 부패하고 시장 우월주의에 집착하고 환경보호에 무관심하고 개인을 숨 막히게 하고 정치적 기능이 약화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일본은 미국이 만든 일본상이며, 미국은 이런 일본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또 미국이 덴노(일왕)의 죄를 덮어버림으로써 일본사회에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를 조장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현대 일본이 부끄러워하는 진짜 일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일본의 문제는 일본 '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사는 모든 구성원의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물론 책의 중심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본이 거기에 자신을 맞춘 일본상의 해체에 있지만 그 갈라진 틈새로 생겨난 일본, 정착하는 일본 '인'의 맨얼굴을 보여주고자 했다.

종신고용과 무과업의 신화 속에 가려진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와 서류 가방을 든 사무라이라는 표상 아래 신봉하는 일본 도시민들의 삶을 보여준다. 또 일본 내의 타자들인 아이누족, 오키나와인, 재일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책의 많은 부분은 한국의 현재와 겹쳐 보인다. 개발 지상주의, 수도권과 지방의 철저한 분리, 정경유착과 비리, 약소국 경시,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무시 등은 공통적 양상이다. 특히 살벌한 경쟁과 주입식 교육 등 일본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부과된 고통을 상술하는 대목에서는 한국의 현재를 보는 듯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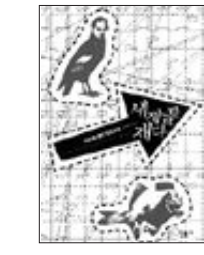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방일 중 숙소인 일본 도쿄 시내 제국호텔앞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며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사회의 보수 우경화하는 독도 도발로 표출되고 있다.

수학자·탐험가의 우스꽝스런 모험이야기

세계를 재다 다니엘 켈만 지음

독일 작가 다니엘 켈만이 실존했던 수학자와 탐험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장편 소설 '세계를 재다'를 펴냈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두명의 주인공은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탐험가이자 해양학자인 훔볼트와 온종일 수학과 물리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며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은둔형 천재 가우스다.

소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크기를 재기 위해 긴 여정을 다녀온 두 사람의 우스꽝스런 모험 이야기를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의 특정한 독일 소설의 전통을 벗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소설로 출간 후 100만부 이상 팔리고 35주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 위스킨트의 '항우' 이래 가장 많이 팔린 독일 소설로 기록된 책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장 역사교사들이 쓴 역사교육론

역사, 무엇을 가르칠까 전국역사교사 모임

현직 역사 교사들이 결성한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성과물들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로 묶어냈다.

역사수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능동적인 재해석은 종래의 역사교육 관련 책에서는 보기 드문 문제의식이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꼼꼼이 짚으면서 수업 현장과 연관된 분석을 시도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으론 역사수업의 저변을 이루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평화교육과 같은 교착된 쟁점들을 수업 사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수업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 교실에서 자주 던져 올린 역사교육, 그 생생하고 풍성한 상처들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여성사, 노동사, 생활사 교육에 관한 고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이청준 '매잡이'

얼마 전에 한국문단의 또 하나의 별이 사라졌다. 한국문학의 머릿돌이었던 이청준 선생은 죽음마지도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 '당신의 천국'에 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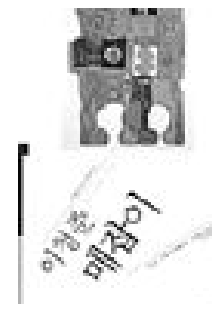
소설가 이청준은 고향 땅 광주에서 어머니 곁에 묻혀졌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다. 이청준 선생은 그에 많은 작품을 통해 뜨겁게 생동하는 모국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이청준 선생이 구축한 작품의 세계는 반대하지만 필자는 '매잡이'에 주목한다. 1968년 '신동아'에 발표된 중편소설 '매잡이'는 그다지 많지 않은 분량에 쉽게 읽히는 소설이지만 대하소설 못지않은 두터움과 깊이로 독자에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매잡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외곽으로 밀려나 고집스럽게 전통을 추구하는 매잡이 광복의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을 액자 소설적인 구성방식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매잡이 광복은 멀리 받아 마땅한 사회 부적응자이다. 시류에 적응하지 못한 광복은 매잡이이면서도 제대

참된 삶의 가치 일깨워 줘



로된 시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매잡이는 마을사람들의 비난과 외면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면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사라져가는 옛것을 지키려는 장인정신을 볼 수 있다. 매잡이 광 서방은 타락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장인이었다.

광복의 죽음은 물질만능의 세태 속에서 실 자리를 잃어버린 장인정신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청준 선생의 '매잡이'는 필자의 작가 정신에 시급적이 되는 책이다.

이 소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자본으로 환산되는 사대를 살고 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삶은 장인정신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있다. 저마다에게 주어진 일이란 보상 행위이며 자본의 가치로 평가된다. 얼마의 보수가 주어지느냐가 직업의 가치와 수준을 결정한다.

보수의 많고 적음이 직업의 가치 척도가 되어선 안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분에 자본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놓칠 수밖에 없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자본의 논리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야말로 투철한 장인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저마다의 직업이 노동과 보수의 수준에 머물러선 우리 삶은 저급하고 통속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각자가 맡은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서 보상행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여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고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청준 선생의 '매잡이'는 참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봐야 할 권장 도서이다.

최일결(시인)

대인동심일부동산
☎(TEL)223-1140, 5210 번외-882-2532
(광주광역시 신안로1길 4번길 2층 신안빌딩 2층)
좋은 지역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일가공인중개사
☎(TEL)821-8216 번외 11-609-0896
(광주우계국부리)
상가건물 매도
-광주 대교빌딩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정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상무랜드공인중개사
☎(TEL)383-5221 번외 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건물
-대607/21.352 보36억/월 3,000만원
-대142/21.200 보1억/월 1,000만원

HOME 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06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発・리서치 선인!
공통대표 김운삼
-오남의 부동산왕 책사
-광주 동문구약회 회장
-광주 동문구약회 회장
-광주 동문구약회 회장

금당부동산
☎(062)223-7400 번외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농성동 200평 공시가 9억7천 매도5억4천
-임동71평 공시가 1억7천 상가면적 1억2천